

엔쓰지 사적공원

기쿠치시 중심부의 남동쪽에 위치한 교쿠시 마을에 있는 엔쓰지 사적공원은 옛날 기쿠치 가문의 비호를 받은 세력이 강한 종교 시설이었던 엔쓰지 절 옛터에 있습니다. 이 절은 기쿠치 가문의 조상인 기쿠치 노리타카가 1070 년에 기쿠치 지방에 도착했을 때, 엔쓰지 절을 교토에서 이전시켜 이 땅에 창건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시 교쿠시는 기쿠치 가문의 영지 경계선상에 있었기에 엔쓰지 절은 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인 와이후의 방위에 힘을 보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엔쓰지 절은 1274 년과 1281 년 일본을 침공한 몽골을 격퇴했다고 알려진 영웅, 기쿠치 다케후사(1245-1285)의 시대에 강대한 사원으로 성장했습니다. 다케후사는 엔쓰지 절에 넓은 영지를 하사했습니다. 이 절은 16 세기까지 번성했으나, 기쿠치 가문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영지는 축소되었고, 이윽고 적대시하던 무사들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1800 년대에 들어서자 엔쓰지 절과 기쿠치 가문의 역사를 향한 현지의 관심이 다시 높아졌고, 엔쓰지 절은 1830 년부터 1844 년에 걸쳐 부흥했습니다. 연못과 가람, 현재 공원에 있는 석조문은 이 시기에 추가되었습니다. 현 지정 중요문화재로도 등록된 돌문은 아소산의 붉은빛을 띠는 화산암으로 만들어졌으며, 우아한 곡선을 그리는 차양이 달린 아름답게 꾸며진 지붕이 눈에 띕니다. 샤쿠나게 정원과 불상이 곳곳에 있는 언덕의 산책길도 공원의 일부로, 이 산책길은 유명한 시코쿠 88 개소 순례를 모티브로 하여 만들었습니다.